

버카충·개꿀잼... 청년층 은어 '한글파괴' 심각

〈버스카드충전〉 〈정말 재미있다〉

'단호박이다(단호하다), 버카충(버스카드 충전), 종튀(SNS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누르고 튀기), 도그 허니 잼(Dog Honey 잼·개꿀잼, 정말 재미있다), 수강 신청 드롭(취소)'

대학생·청소년 등 1020 청년층의 비속어·은어·외래어 사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소셜미디어와 대중매체 영향 등으로 유행하지 않는 말이 급속도로 퍼지고 대학입시와 취업에 필요한 영어 공부 때문에 학교에서 한국어는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광주지역의 4년제 대학 10곳 가운데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과가 있는 학교는 단 2곳이다. 나머지는 대개 외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과이거나 아예 국어 관련 학과가 없

■ 영어공부에 밀려 한국어 '찬밥신세'... 씁쓸한 한글날

광주 4년제 대학 10곳 중 2곳 '국문학과' 유지

대학 총학 표어·동아리명도 대부분 외국어

었다.

대학 총학생회 표어에도 리얼공감(전남대), 그린라이트(조선대), Pro(호남대), 하쿠나마타타(광주대)와 같이 외국어·외래어가 쓰이는 추세다. 동아리명 역시 전남대 권투 동아리 '테크니션(Technician)'과 같이 동아리 100개 중 75개, 조선대는 69개 중 44개가 외국어가 사용됐다.

취업정보 포털 알바몬이 지난해 대학생 41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대학

생들은 자신의 맞춤법 구사 실력을 100점 만점에 78.1점으로 평가했다. 실생활에서 바른 말과 글을 사용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95.2%가 '있다'고 답했다.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띄어쓰기(30.2%)를 꼽았으며 ▲맞춤법(28.4%) ▲적절한 어휘 사용(19.3%) ▲어·문법(13.8%) ▲높임말(5.0%) ▲정확한 발음(3.0%)이 뒤를 이었다.

한국교총은 한글날을 앞두고 지난 1일

부터 6일간 광주·전남지역 교총 회원 160명(교장 포함)을 대상으로 '학생의 언어사용에 대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 결과, '가의 매일 학생의 비속어·은어를 듣는다'는 답이 광주 54.3%, 전남 57.8%에 달했다. 1주일에 2차례 이상 듣는다는 답변도 각각 37.1%, 33.3% 나왔다.

학생이 쓰는 비속어에 대해 절반 정도의 교사(광주 48.6%, 전남 53.3%)는 '대부분 또는 절반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언어 습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원인으로 광주·전남 교원 40% 이상이 '인터넷상의 비속어·은어 범람'을 1순위로 꼽았고, '친구들간 대화 습관(15.2%)' 'TV 등 공공매체의 부적절한 언어사용(14.6%)' 등이 뒤를 이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노인건강 생활체조 경연대회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최상준)는 8일 광주시 북구 매곡동 지사 다목적강당에서 광주·전남 10개 노인단체 및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5회 적십자 노인건강생활체조 경연대회를 가졌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조선대 법인부담금 수십억 학생들 주머니서 나갔다

박혜자 의원 국감자료 분석

2년간 87억2200만원 지출

조선대 법인이사회가 내야 하는 법인부담금을 2년 연속 학교 교비에서 지출해 이를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혜자(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3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교비회계 부담승인 신청 및 승인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38개 대학법인이 2년 연속 사학연금 법인 부담금의 교비지출을 승인받았다.

이 중 18개 법인은 전년보다 많은 부담금을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대학법인 중에는 조선대와 세한대가 법인 대신 학교에서 교비로 법인부담금을 지출했다.

조선대는 2012년 38억7600만원을, 2013년에는 48억4600만원을 교비에서 빼내 법인이사회가 내야 할 부담금을 대신 내줬다. 세한대도 지난해 8억4500만원의 교비를 법인부담금으로 납부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젊은 광주교단

늙은 전남교단

광주, 20~30대 교사 절반이상

전남, 50~60대가 40%에 달해

전국에서 광주교단이 가장 젊고, 전남교단이 가장 고령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희선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 초·중·고 연령대별 교원 현황'에 따르면 광주지역 정규교사는 모두 1만 2706명으로 이 중 20~30대 젊은 교사가 6999명으로 55.1%에 달했다.

20대가 전체 교원의 16%인 2034명, 30대가 39.1%인 4965명으로 20~30대를 합친 교사 비율이 55.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대 교사 비율은 세종(19.04%), 충북(17.88%), 충남(16.93%)에 이어 네번째, 30대 교사 비율은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았다.

반면, 전남은 50~60대 교사들이 전체의 40%에 달해 교사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했다. 전남지역 전체 교사 1만7441명 중 50대 교사가 6173명(35.39%), 60대 교사가 882명(5.06%)으로, 전국 시·도 중 50~60대 교사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에 비해 20대 교사는 15.76%, 30대 교사는 19.83%에 그쳤다.

김희선 의원은 "전남 등은 교단의 고령화 심화로 역피라미드 구조화가 고착되고 있다"며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교사 지원대책을 추가해 청년교사들이 역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3 해질 18:41
해질 18:06 달 뜨기 07:07

단풍 물들어가는 가을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13/26	보성	맑음	9/25
목포	맑음	14/24	순천	맑음	13/25
여수	맑음	17/24	영광	맑음	10/25
나주	맑음	10/26	진도	맑음	11/25
완도	맑음	13/26	전주	맑음	11/26
구례	맑음	8/25	군산	맑음	10/24
강진	맑음	10/26	남원	맑음	8/26
해남	맑음	10/26	축산도	맑음	17/21
장성	맑음	10/25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동~동	0.5	북동~동	0.5~1.0
	면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0.5~1.5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0.5~1.5
	면바다	북동~동	1.0~2.0	북동~동	1.5~2.5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7:37	02:21	20:00	14:48
여수	09:27		03:05	
	21:44		15:25	

◇주간 날씨

10(금)	11(토)	12(일)	13(월)	14(화)	15(수)	16(목)
☀	☀	☀	☀	☀	☀	☀
15/29	15/27	14/26	15/24	13/22	12/22	11/23

◇생활지수

식중독	50
운동	60
빨래	90

전남 초등 기간제 교사 5명중 1명 '명퇴 교사'

명퇴금 받고 재취업... 급여 이중지급 논란

광주·전남 146명 기간제 고용

전남지역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5명 중 1명은 명예퇴직 후 기간제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교사는 광주·전남에만 146명이나 된다. 이는 급여 이중지급 논란과 함께 명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명퇴 교원의 기간제 교사 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명예퇴직금을 받은 뒤 기간제 교사로 다시 취임한 교원은 광주 12명, 전남 134명 등 총 146명이다.

학교급별로는 광주의 경우 초등학교 9명, 고등학교 3명이고, 전남은 초등학교 112명, 중학교 10명, 고등학교 12명 등이다. 해당 지역 전체 기간제 교사에게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는 0.9%, 전남은 9.64%다.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는 제주(0.49%)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반면, 전남은 전국 평균(6.15%)을 크게 웃돌며 강

원(20.75%)·대전(11.8%)·서울(11.29%)에 이어 4번째로 높았다.

특히, 전남지역 초등학교 교사들의 명퇴 후 기간제 재취업은 심각했다. 전체 초등 기간제 교사 518명 중 21.6%인 112명에 달했다.

교단 안팎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두고 가혹이나 심각한 교육 재정난 속에 명퇴금과 기간제 급여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돼 예산절감 효과가 반감되고, 명퇴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보통 1억원 안팎의 명퇴금을 받은 퇴직 교사보다는 기간제 교사로 다시 취임한 경우 청년층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태년 의원은 "명퇴는 명퇴대로 시키고 다시 인력이 부족하다고 재취업시키는 것은 국가 예산을 두 번 지원하는 행위"라며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명퇴금을 받은 교원들이 청년일자리까지 차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 최대부수 광주일보 062-222-8111

비엔날레공원에서 누리는 분양같은 임대아파트

용봉동 도나우타운

문의062 **264-7789**

전용면적 **57㎡**

228세대

- 입주 전 베이비루트 실시
- 주방·욕실 천장에 매립형 통풍시스템 설치
- 건식 욕실, 환풍기 타이머스위치 설치
- 1층 필로티 구조
- 애완견 등 화장실 전용 출입문 설치
- 인방 블랙이강 설치
- 주출입구 차량통제 시스템
- 전세대 화장형
- 전세대 LED조명 설치
- 출·오토시스템

용봉동 도나우타운 현장

용봉동: 롯데하이마트, 용주초등학교, 전남대학교, 전남사대부설고등학교, 용봉초등학교

용봉동: 용봉초등학교, 용봉초등학교, 용봉초등학교

용봉동: 용봉초등학교, 용봉초등학교, 용봉초등학교

오픈 기념 **김장훈 팬사인회** **10월17일 OPEN**